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혁 레시피

SESSION 3

교회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SESSION 3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격려사

맡겨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펜젤러 선교사나 스크랜틴 모자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개척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부족한 것도 많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시작뿐만 아니라 항상 개척의 DNA를 갖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개척교회 혼자 개척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립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개척교회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개척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에 대한 선교나 지원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척교회를 잘 지원하는 것이 곧 기존 교회도 사는 길입니다. 개척교회나 모교회,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모든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때, 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김정석 감독
(선교국 위원장)

그러기에 본부 선교국에서 발간한 “개척 레시피”는 개척을 준비하거나 개척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개척을 지원하거나 선교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개척의 준비과정, 여러 가지 시도들, 현실적인 문제들은 앞으로의 실수들을 줄여주고 어려움을 대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와 방법들을 제공해줍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과 자립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를 떠나 건강한 교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일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책에는 개척 과정에 있었던 목회자들의 고뇌와 진실한 고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글을 함께 나눠주신 집필진과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신 손길들, 개척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발간사

모든 목회자와 선교 동역자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감리교회가 고심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미자립’에 대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교단 내 미자립 비율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6600여 교회 중 절반이 미자립입니다. 물론 교단 내 1/4이 환경적으로 미자립에 머물 수밖에 없는 면단위 이하 농어촌 교회인 ‘여건적 미자립교회’의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미자립 상태에 머물고 있는 ‘침체된 미자립교회’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발전적 미자립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샘플교회’로 삼아 개척레시피3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을 통해 어려운 목회 현실로 방향을 잃어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며, 또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며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다양한 목회현장과 사역의 현주소를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오일영 목사
(선교국 총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국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을 소개하고자 선교-전도중심교회, 사역중심교회, 어린이청소년교회, 농어촌교회, 복지중심교회, 문화중심교회, 청년교회 등다양한 카테고리로 샘플교회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목회정보를 제공하고자 고려했습니다.

바라기는 소개되어진 교회들과 여러분의 목회현장 사이에서 이질감과 비교의식이 아닌 공통분모와 동질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현장 속에서 약진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먼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격려사

김정석 감독(선교국 위원장)

04

발간사

오일영 목사(본부선교국 총무)

06



01

선교-
전도중심교회
12

- ： 1) 혜화동교회 _ 기문규 목사
- 2) 송도커뮤니티교회 _ 임채섭 목사
- 3) 즐거운교회 _ 최봉식 목사

02

사역중심
교회
36

- ： 1) 하늘바람교회 _ 지익우 목사
- 2) 은혜교회 _ 김영광 목사

03

어린이청소년
교회
51

- ： 링크커뮤니티교회 _ 강요한 전도사

04

농어촌 교회

59

： 선한씨앗교회 _ 이성주 목사

05

복지중심교회

67

： 실로암교회 _ 김영란 목사

06

문화중심교회

80

： 로템문화교회 _ 홍기용 목사

07

청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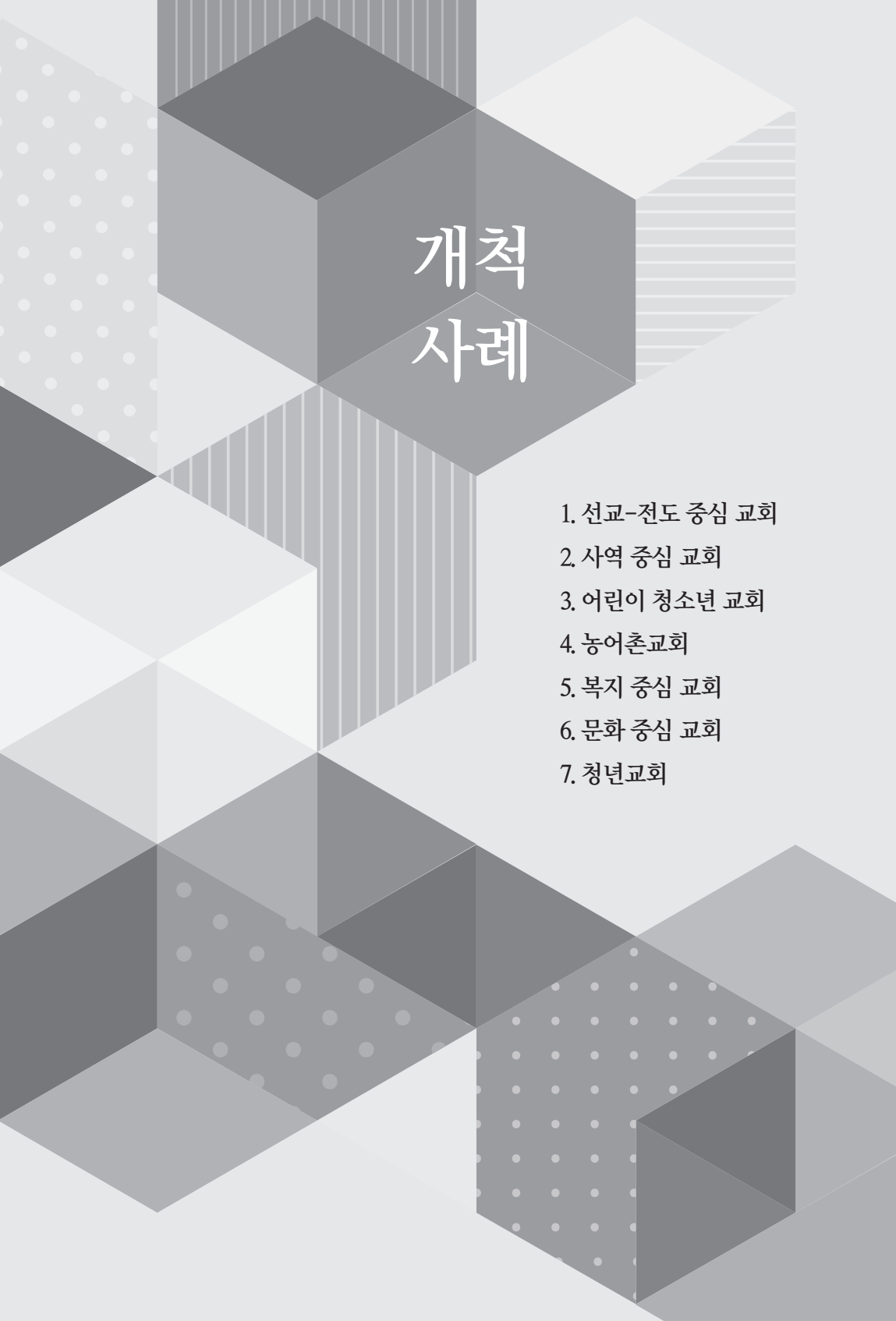
87

： 주님사랑교회 _ 김주평 전도사



감리회 미자립 관련 정책
국내선교부

96



개척 사례

1. 선교-전도 중심 교회
2. 사역 중심 교회
3. 어린이 청소년 교회
4. 농어촌교회
5. 복지 중심 교회
6. 문화 중심 교회
7. 청년교회

선교-전도 중심 교회



혜화동교회 | 기문규 목사

서론

개척목회는 변화무쌍하다.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불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한다. 한 사람이 등록을 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지만, 한 사람이 떠나간 자리는 그 무엇으로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상실감이 크다.



심지어 외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건물 주인이 상가를 급히 비워달라고 한 적이 있다.) 이처럼 개척교회 목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찾아온 위기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여러 목회자가 그러하듯 필자도 맨몸으로 부딪치며 목회를 배웠다. 부끄럽지만 지면을 통해 나의 어리숙한 개척교회 레시피를 공개하고자 한다.

1. 교회 기본정보

대학로라고 불리는 혜화동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오랜 카톨릭교회의 터전으로 곳곳에서 카톨릭과 관련된 기관들을 보게 된다. 또한 젊은 이들이 붐비는 곳이다. 소극장이 한 몫을 하는데, 코로나19로 극장수의 20%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120개가 넘는 소극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혜화동교회는 2001년 혜명교회에서 분리되어 혜화동로터리 인근에서 시작되었다. 전임 목사님께서 10년간 목회하신 교회를 2010년 11월 필자가 부임하여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 12년간 목회를 하면서 세 번의 장소이전을 하였고 현재는 대학로 인근 40평의 임대건물에서 20여명의 30-40대 성도들과 목회하고 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2010년 수련목 과정을 마친 후 혜화동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교회는 두 분의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이 있었고, 더 이상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부임하기 전부터 손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대도시 임대교회가 그렇듯 교회는 주기적으로 예배 장소를 옮겨 다녀야했고, 이러한 장소 이전과 원상복구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는 그 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종로구의 특성상 교회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상가건물에 교회가 들어가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3. 비전과 전략

1) 기도하는 교회

목회지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누가 우리 교회를 올까?’라는 질문이었다.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작고 불편한 상가교회를 누가 다니겠냐는 것이다. 교회의 시설이나 목회자의 수준을 비교해 봐도 목회 초년생이었던 나에게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이었다. 목사 안수를 받아 담임목사가 되었지만, 나에게 목회는 막막함과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도였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길에서 전도를 하였지만, 우리교회가 왜 좋은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방전도는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다. 답답했기에 기도했고, 두려웠기에 기도했다.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 8시에 텅 빈 교회에 아내와 둘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다. 이 때부터 기도사역은 혜화동 교회에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몇 안되는 성도였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 전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이들이 다시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목회는 나의 실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2) 사람을 세우는 교회

개척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항상 무엇에 쫓기듯 목회를 했다. 아내와 함께 늘 분주하게 사역을 했지만 늘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었다. 바쁜 성도들을 배려하고 위한다는 생각에 교회



의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감당해왔던 것이다. 성도들을 양육한다며 제자훈련도 하고, 깊이 있는 독서토론도 수년간 진행하였다.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신앙의 열매도 거두었다고 생각했지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정작 중요한 때에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일쑤였다. 목회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다. 지금껏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해화동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했다. 그때부터 교인들을 리더로 훈련시키고 있다. 이들이 책임있게 소그룹과 각 부서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하고 사역을 분배한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소그룹을 탁월하게 섬길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 역량을 개발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3) 비전을 품은 교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경륜이 쌓이면 목회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개척목회는 늘 분주하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행정과 건물관리를 비롯해 담임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에 소속된 지방회일과 다른 연합사역이 더해지면 분주하게 시간이 흘

러 벌써 한 해가 지나갔음을 발견한다.

누구나 목회를 시작할 때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다. 필자도 사명선언문을 멋지게 만들어 주보에 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



르면서 비전이 희미해지고 비전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다. 과연 나는 비전이 있는 목회자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잃어버렸다.

필자의 경험상 목회에 대한 비전은 처음에 완성된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기보다 목회를 하면서 점차 비전이 구체화되고 선명해진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처음에는 희미했다. 목회를 시작하며 “New People, New Life”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바쁘게 사역하다보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시 비전에 대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한 세부적인 가치와 핵심사역들이 발견되고 개발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가치를 가지고 개척하면 좋지만, 비전의 깊이는 나를 알아가는 성찰과 함께 가기에 이 또한 오래 묵혀야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목회는 때마다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순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과 씨름해야 한다.

4. 교회의 사역

1) 변화를 이루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선교공동체이다.” (3대 비전 : “가치, 온유, 커뮤니케이션”)

2) 핵심사역 세 가지

- 경건훈련 : ① 한 절 묵상, ② 튜닝기도, ③ 믿음의 언어, ④ 다락방기도회
- 제자훈련 : ① 말씀묵상훈련, ② 일대일 양육, ③ 신앙독서토론, ④ 비법 전수(재능기부)
- 선교훈련 : ① 초청예배, ② 초청예술제(연2회), ③ 관계전도훈련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핵심 멤버를 세우는 일은 우리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이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개척 멤버가 중요하다. 사역 초창기에 핵심 멤버를 세우지 않고 외부에서 등록한 교인으로만 시작하였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목회자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 다니게 된다. 교회의 핵심 멤버는 중요하다. 이들과 비전을 공유하며 교회의 고유한 문화를 세워야 한다. 초기 전도도 여기서 시작된다.

6. 마치는 글

우리 교회 목표는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배가 운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 복음의 가치를 체득하며, 새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감사하게도 교인들 안에서 전도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인들의 굳어졌던 마음들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본다.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노력하고 있다.

나는 개척목회를 최전방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특전사라고 생각한다. 야전에 뛰어들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하지만 최전방은 승리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

는 곳이다. 그래서 특전사가 그렇듯 개척교회 목회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동시에 목회자는 계속 훈련하고 성장해야 한다. 야전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의 전투력이다. 개척교회 강점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새로운 변화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목회자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을 이끈다.



1. 송도 커뮤니티 교회 기본정보

송도 커뮤니티 교회(중부연회 연수동지방/담임목사 임채섭)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송도신도시는 수도권외곽의 계획도시이자 경제자유구역이며 약 19만명의 인구(2022년 9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 및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송도 커뮤니티 교회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센트럴파크 인근 상가 2층에서 2019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7명의 성도로 시작된 교회는 현재 장년 25명, 어린이 6명이 출석하며 건강한 교회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목회자 자녀로 자라 신학생, 전도사, 목사에 이르기까지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때가되면 꼭 개척하리라’는 것이었다. 2018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교육목사로 4년차 사역할 때에 가장 목회자인 아버지께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목회의 여정을 보며 개척을 결심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퇴장과 동시에 은혜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간 한 번의 단독목회와 두 번의 부목사사역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밑바탕이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목회적 고민을 넘어 실제적인 목회현장에서 건강한 교회모형을 세우고 싶은 열망





이 생겼다.

그렇게 개척을 위해 기도하던 중 송도신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곳에 적당한 교회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담임목사님께 개척의사를 밝혔고 목사님은 흔

쾌히 개척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7명의 성도와 함께 사역했던 교육전도사 2명이 자발적으로 교회개척에 동참해주었다는 것이다. 원래 개척을 계획함에 있어 최소 6개월정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자 했으나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었기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며 교회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렇게 7명의 성도는 함께 모여 소그룹과도 같은 첫 예배를 감격속에 드렸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를 설립하며 가장 먼저 한 것은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매주 나누는 것이었다. 예배와 모임, 교회구조와 지역사회 연구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듭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성도가 예배팀이 되어 “거룩한 영성 아름다운 예배”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예배를 다듬어나갔다. 그 과정은 평신도들에게 예배신학을 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배에서의 움직임 하나, 예배소품 하나에도 의미를 담고자 했다. 더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예배를 구성하고, 활동과 모임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갔다.

특별히 개척 첫 해인 2019년에는 정기적으로 교회탐방과 종교기행을 하며 지역교회들의 예배와 활동, 건축물의 의미와 상징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지역문화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를 보았다. 그러한

활동들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커뮤니티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지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성도들과 함께한 토론과 탐방을 통해 회중중심의 예배를 기획하고 그 다음으로 한 작업은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사역과 전도활동이었다. 평일 화, 수, 토요일에는 캔들만들기, 캘리그래피 배우기, 통기타 배우기, 뜨개질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접촉하는 기회들을 늘려나갔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가 병원건물 2층에 있기에 병원에 올라가 환우들에게 평일예배와 주일예배를 소개하고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주일오후에는 상가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찬양 버스킹과 길거리 예배 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도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커뮤니티 교회만의 예배 · 문화를 정립해갈 즈음 뜻밖의 암초를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자명하지만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교회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절망감이었다.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개척초기 준비하고 디자인했던 예배와 활동들이 중단되게 되었고, 교회의 움직임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차츰 열심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속출했다. 그렇게 개척



1년 만에 다가온 현실은 목회자인 나조차도 감내하기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교회는 말 그대로 버티기에 돌입한 듯 했다.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2년동안 세련되고 잘사는 이 신도시에 커뮤니티 교회는 마치 더불어 살 수 없는 외인파도 같았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하나님은 개척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 변화를 이끌어가셨다. 어느 권사님부부가 송도로 이사를 오시며 등록을 하시겠다고 교회에 방문하신 것이다. 그분들은 첫 예배 이후 바로 등록하시고 정착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새벽예배 한번 빠지지 않으시며 헌신하고 계신다.

교회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권사님 가정이 적극적인 관계전도를 통해 지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였고,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 신기하게도 그 즈음부터 방문을 통해,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찾아오셨고, 더하여 개척멤버들이 3년동안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코로나 2년동안 방문자 한 명 없던 교회에 올해에만 30명이 넘는 성도가 방문·등록하게 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난 3년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목회를 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 교회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것이 커뮤니티 교회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송도 커뮤니티 교회의 비전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교회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사회로 파송되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꿈꾼다.

특별히 교회의 이름을 ‘송도 커뮤니티’라 정한 것도 지역사회(communitiy)라는 개념을 놓치지 않고 교회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실존하는 자리가 지역사회임을 잊지 않고 예배와 삶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교회론이다.

그래서 필자의 목회철학은 예배와 삶이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역사와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의 내용을 지역교회안에서 담아내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같은 교회의 핵심가치를 송도커뮤니티교회라는 특수성 안에서 역동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교회의 사역

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에 근거하여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되고, 삶의 실천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공예배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 송도커뮤니티 교회의 3대 핵심사역 |

1) 역동적인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자 세우기

의미가 있는 예배, 의미를 담은 예배, 의미를 살리는 예배를 추구한다. 교회의 인원, 공간, 섬김이, 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 11시에배는 예전적인 예배로 드리며, 교회력과 절기에 따른 예배들을 매년 새롭게 기획한다.

주기적으로 예배신학을 강론하고, 다양한 실제현장에 참여하거나 탐방한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형식·공간과 준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깊은 영성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믿음의 양식인 예배를 바로세움으로 교회의 존재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다.

2) 영성훈련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세우기

권위주의적 태도와 수직구조를 탈피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꿈꾼다. 평신도에게 신학적 기반을 다지고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적 관계로 인식하고 신학토론과 독서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예배·기도회와 찬양집회는 1시간 일찍 모여 삶의 나눔 시간인 tea time을 갖고 진행한다. 성도간의 신앙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나눔을 위해서이다. 공동체 모두가 편안한 마음 가운데 모여 먹고 마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영적으로 함께 성숙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3) 지역사회와 친구되기

매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실행한다. 교회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단순히 복음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정기적으로 주일 오후에 마을청소를 실시하고, 평일 중 3일을 문화강좌를 진행하여 교회를 열린공간으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기관을 통해 정기적으

로 도울 수 있는 재능기부를 준비하고 있다.

5. 초기 전도/핵심 멤버 세우기

1) 초기전도

송도 커뮤니티 교회는 설립초기에는 전도지 없는 전도(?)에 주력했다. 교회가 센트럴파크에 인접해있기에 공원에서 찬양버스킹을 하며 사람들과 접촉했고, 평일 문화강좌에서 만든 캔들이나 디퓨저를 가지고 나가 선물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일에는 길거리예배를 통해 교회를 알리기도 하였다.

사실 개척초기에는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줄이고 어느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다.

송도 커뮤니티 교회는 현재도 이런 방식의 복음사역을 선호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벽기도 후에는 성도들이 전도용품을 챙겨 자신이 사는 지역에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교회명함전도도 진행하고 있다.

2) 핵심 멤버 세우기

송도 커뮤니티 교회의 특이점은 작은 교회지만 교육전도사가 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한 전도사는 거의 없고 다음 사역지를 나가기 전 휴식기에 예배와 모임을 참여하였는데 한번도 끊긴 적이 없다.

어쩌면 교회입장에서 후배 전도사들은 잠시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예배에 어떤 역할이 부족한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 초기 성도들이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준



것이다.

그렇게 초기에 함께했던 전도사들로 인해 개척멤버들은 평소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사역의 빈 자리를 찾아 봉사하는 헌신자가 되었다.

6. 마치는 글

한국교회는 과거 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했다. 하지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에게 있어 교회의 실패란 없다. 단지 성장과 부흥이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는 인간의 욕심이 실패할 뿐이다. 나는 앞으로도 송도 커뮤니티 교회가 재정과 인원에 있어 엄청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작게나마 감당하고 싶을 뿐이다.

지역주민들이 송도 커뮤니티 교회를 떠올릴 때 예배가 행복한 공동체, 삶이 예배인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충분히 크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시대의 작은 교회들이여!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1. 교회 기본정보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즐거운교회는 2003년 최봉식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까지 목회하고 있다.

개척 초기, 임대 들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갔고, 이로 인해 담임자가 바뀌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봉식 목사의 부임 이후 차츰 안정을 찾으며 지역교회로서 터전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성장의 초석을 마련한 즐거운교회는 2007년 9월, 상가 지하에서 오산시 양산동의 150평의 교회로 이전하였다. 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였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체질이 변한 즐거운교회는 이후 15년간(2007-2021)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예배와 전도와 섬김에 집중하였다. 인근 한신대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사역은 즐거운교회가 청년들도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였고, 더욱 힘을 내어 다양한 지역 섬김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의 예배가 위협받고, 성도들의 모임이 어려워지던 2021년 5월, 즐거운 교회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때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여 인근의 650평 부지의 성전을 매입, 이전하였다.

두 번의 성전 이전은 개척 초기에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맺은 열매이다.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특별히 두 번째 성전 이전은 코로나 펜데믹의 방해를 이기며 이뤄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기도 하다.

즐거운교회는 두 번째 성전 이전 이후에 모든 사역을 관계전도에 집중하였고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7명의 새로운 성도가 새신자로 등록하였다. 즐거운교회는 새롭게 이전한 성전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2. 전도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열매

즐거운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47명의 새신자를 전도하였다. 이는 일회성 전도 행사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개척 후 23년 동안 한 지역에 자리 잡으며 뿌렸던 복음과 섬김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운교회의 성장은 단기간의 부흥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전도의 결실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즐거운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한다.

1) 모소 대나무를 닮은 즐거운교회

모소 대나무, 중국의 동쪽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5년이 되는 해부터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하루에 30cm 가까이 쑥쑥 자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또 6주가 지나면 15m 이상 자라서 텅 비어있던 대나무 밭이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한다.

즐거운교회는 모소 대나무다. 올해로 23살이 된 즐거운교회는 모소 대나무 처럼 긴 시간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개척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차근 차근 지역에 뿌린 내린 즐거운교회는 지난 2번의 성전 이전으로 볼 수 있듯이 가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다. 23년 동안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쉽 없이 꾸준하게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지역을 섬겼고,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다. 모소 대나무의 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듯 즐거운교회는 지역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속이 텅 빈 대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은 대나무 줄기에 있는 마디 때문이다. 이 마디가 대나무를 든든히 세워준다. 그럼통도 마 찬가지다. 중간에 마디를 넣음으로 4배 이상의 충격을 견뎌 낸다고 한다. 즐거운교회가 여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시간을 지내며 만든 ‘마디’ 때문이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다음 성장의 출발이 되는 ‘마디’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마디’는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즐거운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마디’를 소개한다.

2) 첫 번째 마디

웬만하면 찾아오기도 힘든 상가의 지하, 그곳이 즐거운교회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그렇듯이 온전한 것을 찾기 힘든,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였다. 그럼에도 매주 1회 이상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돌면서 전도를 했다. 전도의 열매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7-8명 안팎의 성도가 예배인원의



전부였다. 가끔 어렵게 교회를 찾은 이들도 한 번 예배 후에 다시 찾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섬길 이들을 찾았고 우리는 섬길 영혼들을 만났다.

당시 교회 주변엔 학교에 다녀와서 해가 지도록 뛰어 노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노는 아이들을 만나 교회로 초청했다. 하나님께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즐거운교회를 보내신 것이다. 몇 번의 만남으로 가까워진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즐거운교회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교회에 찾아왔고 교회는 아이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는 복음 자리(보급자리)가 되었다.

교회학교의 성장이 시작되면서 성인 성도들의 전도도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20여명 모일 즈음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2007년 봄, 작은 개척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교회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았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 큰 비전과 사역을 위해, 오산시 양산동에 150평 부지의 장로교회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교회를 이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작은 사명일지라도 감당하면서 교회의 첫 번째 마디를 맺을 수 있었다.

3) 두 번째 마디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도지와 빵을 나눠주며 지역에 교회를 알렸다. 전도지를 나누다 보니 항상 똑같은 디자인의 전도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즐거운교회는 매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전도책자와 함께 다양한 전도 용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버려지던 전도지들이 사람들 손에 들려 읽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필요를 찾고, 지역을 섬기기 위해 사랑나눔 바자회와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교회 텃밭을 주말 농장으로 공유, 성도들과 함께 하는 지역 청소 등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만난 분들을 새신자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와 같은 전도와 섬김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었고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즐거운교회 가까운 곳에 한신대학교가 있다. 처음 교회에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어린이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학교 주변 기숙사와 원룸 등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청년공동체를 세우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다. 하지만 청년 성도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은 시작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은 분명히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신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도하며 교회를 알렸지만 학생들은 교회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청년공동체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으니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교회의 여러 공간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만드는 것이다. 목양실과 비품실을 정리하여 싱크대와 화장실을 구비한 원룸 2개의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이 전액무료 기숙사 “조이풀 하우스”다

한신대학교에 전액무료 기숙사 “조이풀 하우스”를 광고 한 후 다양한 청년들이 연락했다. 그 중 4명의 청년이 거주하면서 청년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조이풀 하우스”가 밑거름이 되어 청년공동체는 성장했고 이후 한신대학교 CCC와 연계하여 한신대 청년들을 섬기면서 20여명의 청년공동체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자립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던 2020년,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다. 예배실 수용인원의 70% 정도가 채워지고 주차장이 협소해져서 보다 넓은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몇 달 동안 성도들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감사하게도 2021년 5월에 대지 650평, 예배당과 교육관 2동의 건물이 있고 기존 교회와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현재의 교회로 이전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에 즐거운교회는 보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썼고,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즐거운교회가 두 번째 마디를 맺고 세 번째 마디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4) 세 번째 마디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변화시켰다.

교회를 이전하고 예배 공간이 4배 이상 넓어졌기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마음껏 전도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하던 지역 사역이 모두 멈췄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던 과거의 사역은 요원



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셨다.

즐거운교회의 새로운 길은 관계전도 사역이다. 온 교회의 사역을 관계전도에 집중하였다.

이전을 준비하면서부터 전도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지속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이어갔다. 성전을 이전한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등록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성전 이전 이후 코로나 상황에도 47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한 전도의 열매였다.

이웃을 향한 눈을 뜰 때 그들의 필요가 보인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면 된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는 변화의 틈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힘차게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고, 위기가 올 때 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마디마디 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또 감사하며 우리는 또 다음 마디를 만들 것이다. 모소 대나무 같은 즐거운 교회는 오늘도 길을 내며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

3. 교회 비전

“지역의 영적 리더가 되라.” 즐거운교회의 관심은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하며 지역을 섬긴다. 예배와 섬김으로 전도하여 병점을 중심으로 교회 주변 지역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교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기도제목이다.

코로나의 여파로 제반 여건들이 전과 같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깊어지고 성숙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즐거운교회는 때가 이르렀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지역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고 있다.

4. 현재 교회의 사역

즐거운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지역(세상)과 복음의 접점을 만드는 것에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외면하는 세상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즐거운(J.O.Y.) 사역이라고 부른다.

즐거운(JOY) 교회, 즐거운(J.O.Y.) 사역

Jesus 1st

- 즐거운교회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공동체이다.
- 전교인 성경 통독 | 금요성경공부 | 감사일기
예배와 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팀”

Others 2nd

- 즐거운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랑 공동체이다.
- 사랑나눔 바자회 | 새신자 초청 열린예배 |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 주말 농장 공유
전액무료 기숙사 “조이풀 하우스”
어린이 온라인 말씀통독 - 거룩한 습관 들이기 “해빛 메이트 Habit mate”
관계전도 훈련(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하기, 지속적인 만남과 섬김, 복음 전파, 교회 초청)

Yourself 3rd

- 즐거운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해 건강해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믿는 축복 공동체이다.
- 국내외 선교지 후원

5. 마치는 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즐거운교회의 이야기뿐 아니라 개척 레시피에 소개된 모든 사례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전도의 동력을 얻기를 바란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흥의 새역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교회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한다.

즐거운교회는 대나무가 마디를 맺으며 높게 자라듯, 때론 흔들리겠지만 부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흥을 기대하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즐거운교회의 여정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사역중심교회



하늘바람교회 | 지익우 목사

1. 하늘바람교회는

하늘바람교회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고척돔 야구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다. 오랜시간 거주한 고령인구가 많고 새롭게 유입되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 곳이다. 2012년에 3대 담임자로 부임하여 현재 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더딘 걸음이지만 한명 한명씩 모여서 어느덧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인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2층 작은 예배실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성장하였고 장소가 부족하여 코로나 직전에 확장 이전하였다. 지금은 30평 두 곳을 예배실과 친교실로 사용하고 1층에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목회하고 있다.

2. 부임 과정과 초기사역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하늘바람교회에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름은 부임이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여 목회자가 바뀌는 열악한 곳이었다. 그래도 목회자가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두 가정

과 함께 재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처음 목동에서 고척동으로 왔을 때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놀랄 정도로 환경과 시설이 낙후된 곳이었다. 한번은 가르쳤던 학생들이 방문하여 심각한 얼굴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곳으로 쫓겨났냐는 이야기에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주 오래된 건물에 손잡이를 당겨서 물을 내리는 옛날 화장실,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교회 입구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보니 내 마음속에 이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했으니 부끄러운 고백이다.

초기사역은 한마디로 내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사역이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일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다. 초기에 했던 설교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 시리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과 생명의 능력, 이런 설교들을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계속했다. 그때의 설교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는 기도하다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런 곳에 정말 한명이라도 누군가 오는 것을 본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겠다고 꾸념하듯이 기도를 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싸한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주에 한분이 나타났다. 원래는 다른 교회를 나가보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고 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까불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3. 전도/ 멤버십 세우기

1) 전도 또 전도

처음에 혼자 전도를 나가려니 쑥스러웠다. 함께 전도를 못나가 미안했던 성도님이 자신의 언니를 소개해주었



다. 그분은 다른 교회 전도 팀장이셨는데 시간을 내서 돕겠다고 하셨다. 그분과 함께 가가호호 벨을 누르며 전도지, 사탕, 물티슈, 영양제, 행주 등 각 사람에 맞게 물품들을 나누며 전도했다. 벨을 누르다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많았는데 그분 수첩에는 항상 “반응 좋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의 전도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도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모두 함께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도를 생각하다가 부침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몇 명 안되었지만 전교인이 함께 하는 전도라는 것이 큰 감동이었다. 교회 근처 마을 정자에서 자리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부침개를 대접하고 발 마사지도 해드렸다. 앉아서 드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상담도 해드리고 때로는 축복기도도 해드렸다. 그러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많이 전도했다. 기억 남는 분이 92세 할머니셨는데 난생처음 교회에 와보신다고 하셨다. 교회 오셔서 매주 예배드리고 함께 영접기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셨다. 늘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걱정해 주시곤 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드린 것 같아 감사했다. 매주 가가호호 다니며 반찬 봉사와 심방 등을 하며 어르신들을 전도하고 돌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돌아가시기도 했고 요양원이나 자녀들에게 떠나셔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선 젊은 층들을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후로는 꾸준한 소그룹 전도와 관계 전도로 젊



은 층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초청 예배와 연령별 1박 2일 MT와 수련회 기타 야외 행사들도 적극 활용하여 초청하고 전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교인이 한 테이블이면 식사가 충분했지만 한 테이블씩 늘어가기 시작했고 유아실까지 들어가 식사하면서 교회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다.

2) 변화 또 변화

시간이 될 때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밝고 깨끗하고 예뻐다.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교회라면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판단했다. 재정은 없었지만 여러 방법들을 찾아 보았다. 처음에는 중고나라에 나 놓하는 목재들을 받아오기도 하고 각종 인테리어 도구들을 옆 교회에서 빌려와서 이리저리 붙여보기도 하고 뜯어보기도 했다. 이후 차츰 실력이 늘어 강대상도 만들어보고 테이블도 만들었다. 성도들이 좋아했고 조금의 변화로 교회에 활력이 되었다. 열심히 목회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 동력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당에 초록색 주차장 바닥, 어둡고 위협적인 교회 입구, 냄새나고 지저분한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꾸어갔다. 예쁜 것이 있을 때 교회에 가져다 두었고 지저분한 것이나 이상한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새가족이 왔을 때 교회가 따뜻하고 예쁘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다. 변화는 교회에 작은 동력이 되었다. 지금은 교회를 확장 이전하며 1층 카페를 오픈하고 2층 친교실과 예배실을 분리해서 임대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제법 들었지만 선교를 위해 과감히 진행하였고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3) 함께 또 함께

교회는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곳이다.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서로가 달랐다. 나이도 성별도 자라온 배경도 심지어 신앙의 스타일도 다른 느낌이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함께 가족이 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초창기 성도 중에는 알콜 중독도 있었고 정신 질환

환, 상처가 많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 등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았다. 어떻게든 이들을 돕고 싶었고 상담과 코칭을 배우며 성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고 애썼다. 그때부터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너무 중요했다. 처음에는 소그룹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 것 같다. 리더들을 매주 양육하며 훈련 시켰고 소그룹별로 매주 삶을 나누고 양육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야외 활동도 계획했다. 전교인 야외예배, 1박 2일 수련회, 소그룹 MT, 선교회별 1박 2일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함께 기도했다. 상담 프로그램과 코칭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지금은 정말 가족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하고 또 함께한다.

4. 온라인 교회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방치된 성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이런 단순한 고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기로 했다. 최소 인원으로 예배팀을 꾸렸고, 유튜브, 줌, 카톡방으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지속했고 소그룹 리더들과는 토요일 밤마다 양육하고 회의했다. 소그룹을 강화했고 매일 성도들이 큐티와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그룹 카톡방에 올리며 서로의 신앙을 독려했다. 중보기도팀도 만들어져서 매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리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했고 매일 9시 중보기도 모임을 보이스트록으로 진행했다. 새벽기도를 대신해 유튜브에 매일 3분 말씀 영상 ‘미라클 모닝’을 편집해서 올렸다. 수요일은 성경공부 콘텐츠 ‘성경의 맥과 핵’을, 주일과 금요일은 예배팀과 찬양 예배를 송출했다. 화분과 떡, 치킨을 들고 성도들을 찾아가 드라이브쓰림 심방을 하기도 하고 택배로 특별예배 키트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보내기도 했다. 만나지 못했지만 더 많이 만났고 접촉하지 못했지만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성도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

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한층 성숙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코로나 중에서도 7명의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었다.

5. 마을 목회

관계 전도를 통해 전도되다 보니 서울, 안산, 여주, 파주, 인천, 김포 등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다 보니 지역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졌다.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고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1) 디저트 카페: DORCAS

고민 끝에 먼저 시작한 것이 1층에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다. 감사하게 전 사역지에서 만난 권사님 한 분이 디저트 레시피와 백화점에 납품하던 곳을 넘겨 주셨다. 아내와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세워 운영을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앞이라 엄마들과 아이들이 주 고객인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목회한 기간보다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올해는 kbs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 장소가 섭외되어 20회가량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 이후 더 인기가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카페를 통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결하여 매달 케이크를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마을과 연결하여 선한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



2) 구제 사역팀 : 걱정말아요 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제팀을 만들었다. 이름은 ‘걱정말아요 그대’팀이다. 지역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이 사역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찾아서 매주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주 16가정 정도를 방문하여 돌보고 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도 해드리는데 감사하게 기도의 응답있었고 구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간증이 생기고 있다.

3) 주민참여 프로그램

코로나 이후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친교실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초청하여 마카롱 클래스를 열고 있다. 반응이 좋다.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인기 강좌들을 열어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주는 앙상블 토브팀을 초청해 다양한 악기들의 합주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미나들을 통하여 지역교회로 세워나가려고 한다.

6. 사역 정의와 핵심 사역



벨기에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력이라는 작품이 있다. 화가가 알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캔버스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새가 그려지고 있는 장면이다. 사역에 대한 큰 깨달음을 준 작품이다. 나에게 사역이란 사람과 교회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보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핵심 사역은 1)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훈련을 통하여 양육하여 세우는 것, 2) 공동체 영성훈련과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매일 함께 묵상과 기도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 3) 관계 전도와 마을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7. 마치며

아들이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가 생각난다. 그때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다. 자꾸 넘어지는 것만 같아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금방 탈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동생을 태우고 다닐 만큼 선수가 되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모든 걸음들이 불안정하고 자신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아가고 있는 순간들이었고 배움의 순간들이었다. 당연히 처음엔 서투르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개척교회는 처음이니 까... 그러나 분명한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균형을 잡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응원한다.

진흙을 보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있지만, 차근 차근 반죽을 하고 장인의 손에 다져지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개척은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짐을 믿고,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의 되어갑니다.

오합지졸의 믿음이 모여 ‘좋은’, ‘깊은’ 관계 맺음으로 뭉치게 되니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교회 기본정보

의정부에 위치한 은혜교회입니다.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전세대가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5년 전에 두 비전교회가 합쳐지면서 담임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온지는 9년이 되었고 다음세대 사역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2014년 4월,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단 법은 담임자리가 있어야만 안수를 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수를 받기 위해 교인 없는 자리라도 찾아 나서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두 곳의 자리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인천이었고, 또 다른 곳은 의정부였습니다. 물론 두 곳 다 교인 없이 교회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천은 저의 고향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인천

을 떠나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천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 없는 의정부로 선택했고, 그렇게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정부로 이사 올 당시 결혼할 상대도 없는 총각이었고, 자동차도 없고, 버스노선도 모르고, 의정부가 어떤 땅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가도 한 사람도 없었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 말로 광야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목회의 순간 순간 무모한 도전은 계속되었지만, 그 때 마다 도전하게 하였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신학생 때, 동기들과의 대화중에 특정 목회를 표명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찬양사역을 할거야”, “나는 청소년 목회를 할거야” 등 이미 다양한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특징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처지는 듯 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어떤 목회를 하는지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방향성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종인 목사는 그저 주어진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무 전략 없이 목회를 시작하게 된 터라 더욱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의 전략이라 한다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1월의 의정부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호기롭게 의정부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참한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명료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냈지”

“하나님, 지금 우리교회는 전도지 맞출 돈도 없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대답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습니다. “너는 전도지 않으면 복음도 못 전하느냐?”

그렇게 또 다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예배 후에 전도지 없이 전철역 앞에 나가서 외침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전도하니 전도지가 생겼

고, 또 한달을 하니 전도지 맞출 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에 전도하고, 오후에는 학교앞 전도, 교회앞 전도 등 전도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에 순종하자, 3개월 뒤에 청소년 3명, 청년1명, 어른1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때 결혼할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는 목회자 한명이었던 교회가, 그해 연말에는 10명의 공동체가 되어, 성탄절야 축제도 하고, 세례와 성찬도 베푸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 2년차 여름에는 어린이 예배를 세우고 싶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학교앞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쿠폰을 제작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전도하고, 학교앞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성경학교 주방팀으로 도움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쓰고 난 성경학교 포스터와 포토존 등도 빌려다가 교회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는데, 2틀 동안 15명의 어린이가 교회에 왔고, 그렇게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가족이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식구입니다. 식구는 함께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학생들과 함께 많이 먹었습니다. 수요일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먹고, 금요일예배 전에 함께 먹고, 토요일에 모임 때도 먹고, 주 일에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저도 자주 먹었습니다. 또 함께 잘 놀았습니다. 대학탐방도 다니고, 나들이고 가고, 전도 축제로 친구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게임도 하였습니다. 수련회 가는 날이면, 마지막 날은 고기 먹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가장 장점은 목사가 성도를 1:1로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육을 하더라도 일대일,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때만 참석하여 만날 때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목사와의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가 되자,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는 전도의 원동력이 되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교회의 사역

1) 저의 사역을 정의한다면, ‘관계 맺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고, 양육을 하더라도 수많은 교습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열심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어떤 교회는 잘되고, 어떤 교회는 안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 목회자가 얼마나 성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한들, 목회자가 성도들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특별할 것이 없는 사역을 하더라도 그 순간 순간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진심으로 깊이 만나게 될 때, 그 사역은 소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맺음을 우리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성도들의 아픔 앞에 함께 울 수 있게 되고, 또 기쁜 일을 앞에서는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

의 마음이 교회 사역의 기본입니다.

2) 우리교회의 핵심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① 관계전도 같은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도 관계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전도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의 대상은 불신자, 타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관계전도의 대상입니다. 노방전도의 대상자는 ‘교회를 찾는 사람’,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이사 온 사람’입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만나거나, 한번을 만나더라도 1분 이상 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이고,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장소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혜교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순간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좀 더 대화할 시간이 된다면, 교회 위치를 소개하고 교회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좋은 ‘관계 맺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 마다 응원과 격려의 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 1년 차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받은 사람이 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하겠지만, 관계 전도 같은 노방전도는 됩니다.

② 가볍게 놀러가는 모임 같지만 깊은 교제로 발전하는 모임입니다.



‘청소년부 대학탐방’, ‘제주도 졸업여행’, ‘청년부 홍계무한리필 속초여행’, ‘효도 관광’ 등 아주 가볍게 놀러가는 모임 같지만, 실은 공동체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무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여행 중에는 항상 티타임을 가지면서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친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지만, 막상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을 받게 되면, 스스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서로 대한 끈끈한 신뢰도가 쌓이게 됩니다. 칭찬을 받은 후 소감을 이야기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칭찬을 하다가 눈물이 나서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나면, 어느덧 깊은 관계로 발전해가고, 어느덧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가볍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서로 끈끈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번 관계 맺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③ 설교 없는 153가정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대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세대의 대안은 온라인이 아니라, 가정예배에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문제는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이 끊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예배는 예배를 빙자한 부모님들의 잔소리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의 부담도 컸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예배의 형식을 빌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정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153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 은혜 받은 한 가지 말씀 나누기

5 | 다섯 가지 감사 제목 나누기

3 | 세 가지 따뜻한 말 전하기 (매주 바뀜, 칭찬, 고마워, 인정하는 말, 장점, 축복의 말 등)

특별한 예배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찬양과 기

도를 첨가 혹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3가정예배의 핵심은 세대간의 소통에 있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잔소리가 없습니다. 쉽습니다. 부모에게 인정하는 말을 들은 청소년들은 멋쩍어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자 남편의 마음이 유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자 자녀들의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찬양이 없어도, 설교가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막혔던 관계가 뚫어지고, 새롭게 깊은 ‘관계 맺음’이 형성됩니다.

5. 마치는 글

개척목회는 영혼 사랑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목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재정도 아낌없이 지출할 수 있어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이 나와야 하고,



성도들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목회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부교역자(전도사)로 있을 때는 이 질문에 솔직히 ‘NO’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 제가 죽어야죠’ 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현장에서 저를 목사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개척은 무모한 도전이지만 진짜 목사가 되는 확실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청소년교회



링크커뮤니티교회 | 강요한 전도사

다음세대 복음화율 3%미만, 선교학에서는 각 종족 당 복음화율 3%미만은 미전도 종족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에 다음세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하니 앞으로 다음세대의 탈교회화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링크커뮤니티 교회는 이 시대의 다음세대를 향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다음세대를 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1. 교회 기본정보

링크커뮤니티 교회는 서울연희 노원지방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계동 보람아파트 맞은 편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 당시 중앙연희 남양주 지방에 양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강요한 전도사가 부임하여 2021년 현재의 노원지방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개척 4년 차, 15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며 다음세



대를 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학교에서 진로강사로 일을 하면서 한 학생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자꾸 꿈을 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데 마치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저는 복음이 뭘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 불 붙듯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팀 켈러의 ‘센터처치’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내게 깊숙이 다가왔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나 교회의 삶을 세속 생활이나 문화적 삶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 삶의 모든 영역(직업, 공공, 가족, 여가, 물질, 성, 재정, 정치)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역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사실 생계를 병행하기 위해 시작했던 진로강사라는 일이 나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 사역에 접목을 시키며 다음세대를 품는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였다.

처음엔 주변 선배 목사님들께서 만류를 하셨다. 언제까지 다음세대 목회만



하겠느냐고, 다음세대 목회는 마치 밭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셨다.

물론 쉽지 않았다. 사역을 벌여놔도 후원이 없는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였다. 개척을 하고 이듬해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사

역도, 강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노가다부터 대리운전까지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개척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진급을 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인해 건물에서 교회 퇴



거 요청을 받고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자 모든 상황이 마치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는 와중에 다음세대 청년 공동체 서울연회 노원지방에 있는 ‘패스커뮤니티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일전에 일면식도 없이 답답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지모정 목사님과 청년들은 자기 일처럼 공감을 해주었다.

그렇게 패스커뮤니티 교회에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물질과 기도의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교회는 진급하는 과정 중에 이례적으로 교회를 이전하여 지금의 노원지방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 안 다음세대 아이들의 진로를 함께 컨설팅해주고 기독교 세계관을 녹인 기독교 진로 커리큘럼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지방 교사 강습회 등에서 교육을 하며 링크진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접촉을 하며 다음세대와 교회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음세대를 향한 발돋움을 해나가기 시작하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또한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 이들로 더 채워지기 시작했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한 사람의 구원이, 다음세대의 변화로”

링크커뮤니티의 브랜딩은 다음세대이다.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학교와 다음세대를 품는 사역을 감당하다보니 교회에 붙는 장년 성도들과 청년들 또한 기꺼이 다음세대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과 함께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성도들이다.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개척교회에서 대상에 대한 분명한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사역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4. 교회의 사역

| 사역 정의 : 나의 사역은 (잇뎌)이다 |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다음세대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링크커뮤니티란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

| 핵심 사역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

1) 다음세대를 잇는 사역

① 학교 사역



영신 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매주 수요일 채플 시간에 찬양인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목요일 동아리 시간에는 찬양팀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다. 동아리 학생들 중 특이한 점은 교회에 다니지 않음에도 찬양팀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교회에 등록한 학생들 또한 있으며 학교와 긴밀히 연합하여 학생들이 교회를 넘어 학교와 일상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통전적 영성을 교육하고 있다.

② 링크진로연구소

정부에서 발표한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정책 비전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바뀌는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청소년 활동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다음세대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존중해주기보다는 여전히 80-90년대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수동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링크진로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

도성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꿈꾸는 학생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다.

③ 연합 수련회 사역

교회가 작아 독자적으로 수련회를 기획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형 집회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을 하기엔 아직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주눅터지는 모습이 눈에 선하여 자체 연합 수련회를 기획하였다. 우리와 같이 학생부 인원이 10명 이하로 적은, 교세가 적어 다음세대 사역자를 두기 어려운 교회들이 연합하여 수련회를 열도록 주최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2) 지역사회와 잇는 사역

① 공유공간 사역

교회를 이전하며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교회를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더라도 공간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모던하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구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였다.

이후 평일에는 공간을 무료로 오픈하여 마을 협동조합, 책모임, 학생들의 스터디 공간 혹은 보드게임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전체 대관의 경우 예약



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② 원데이 클래스

가족공예, 디퓨저 만들기 등 누구나 와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래스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하고 있다.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옛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 처음 개척을 한 뒤, 6개월 남짓을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 사는 빌라에 가가호호를 돌며 쿠키와 함께 교회 전도지를 돌렸지만 상가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교회에는 단 한사람도 오지 않았다.

큰 실망감과 함께 고립감이 몰려올 때쯤 동시에 재정에 대한 압박도 억눌려 갈 때 교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탈기독교시대에 교회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

이제는 교회에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없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길에서 커피 한잔을 타서 전도지와 함께 전하러 해도 홀로 하기엔 ‘손이 부족했다.’는 핑계와 함께 커피 한잔 드시라는 말이 성향상 참 쉽지 않았다.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건네는 믹스 커피 한잔과 전단지 한 장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저 개업 광고를 하기 위해 전하는 전단지를 받듯이 전도를 하려 다가가는 나를 피하거나 꺼려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주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터로 나갔다. 군 복무를 할 당시, 자대배치를 처음 받았을 때, 바로 윗선임이 일주일 안에 외우라며 줬던 군가부터 소총 제원, 소대 선임 계급까지 적혀있던 병기본 리스트가 있었다. 그걸 외우기 위해 밤낮없이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다보니 자다가도 누군가 와서 툭 치면 자동으로 군가가 튀어나오고 그랬다.

아내와 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도 없는 예배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겐 너무도 절실했기에 앞으로 세워갈 교회의 모습을 군대에 입대했을 때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중얼중얼 거리며 다녔다. 교회에 미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아내의 일터에서 만난 청년이, 나는 개척 초기에 생계를 위해 일했던 배달대행 사무실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첫 성도들이 되어 전도가 되는 경험을 했다.

6. 마치는 글

올 해로 개척 4년 차, 여전히 목회란 무엇인지 모른 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적게 되었다. 이전에 기고된 수많은 개척 성공 사례들을 보며 감히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적어도 되는지 감량이 될까 싶었지만, 사실 개척 성공 사례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해도 여전히 미약한 우리네 현실이 앞으로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염치를 불구하고 적게 되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열심히 몸부림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릴 통해 세대를, 나라를, 민족을 구원해주시심을 믿기에 이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다짐해본다.



선한씨앗교회 | 이성주 목사

1. 교회 기본 정보

선한씨앗교회는 충북연회 음성서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2016년에 개척되어 음성군과 진천군 사이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구 약 3만 5천 명의 작은 소도시이지만 30~40대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교회 역시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성인 약 50명, 교회학교 약 4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개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보면, 부르심이란 표면적 이유 말고도 개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개척을 향한 열망과 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가 동시에 찾아왔다. 물론 열망이 조금 더 앞서기는



했지만 말이다. 수련목 과정을 마칠 즈음 그때의 나는 그랬다.

개혁의 비전을 품고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개혁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는 일이었다. 책을 덮고 나면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남아 있었다. ‘~년 만에 ~으로 부흥’ 나 또한 그게 나의 일이 될 것처럼 들떠 있었다. 그게 성공한 개혁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목표가 되자 다음은 장소였다.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이 목표였다. 적어도 사람이 적은 곳보다 많은 곳이 더 비전 있어 보였다.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마땅한 공간을 찾았고, 교회 공간을 꾸몄으며, 원만히 교회가 개혁되었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찬 채로 말이다. 비록 우리 가정밖에 없었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오히려 간증이 되리라 생각하니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3. 비전과 전략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개혁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비전이 있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넘쳐났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가지로 귀결되었다. 즉, 사람을 채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오로지 전도와 말씀 준비에 힘썼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를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철저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전도가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설교는 내부에서 만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날 시점까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서서히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즈음 한 집사님 내외가 선뜻 등록하셨다. 그분들의 헌신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고 이를 시작으로 이듬해 초에 10여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다. 늘 1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10명의 결실이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00명을 놓고 기도할걸’

솔직히 말해 여전히 목표는 교회를 채우는 데 있었다.

10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할 즈음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1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막상 10명이 모이니 무엇인가 아쉬움이 느껴졌다.

‘5명만 더 있었더라도, 10명만 더 있었더라도’

감사의 마음은 곧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족함만 도드라져 보였다. 이어서 불안감이 찾아왔다.

‘이분들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불안감은 두려움을, 두려움은 조급함을 불러왔다. 더 애를 쓰고, 더 힘을 써야만 할 것 같았다. 개척도 성공시킨 목사가 되고 싶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는지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목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정립한 것도 이즈음이다. 지금까지 내가 쫓고 있었던 것이 나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잃은 양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던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울타리 안에 있던 양들을 그저 내 근처로 불러 모으던 사역을 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한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많아지는 데 있었다. 교회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다.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그저 땅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이걸 비전이라고 붙잡고 있었다. 그건 사명도, 부르심도 아니었다. 그저 성공 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이 아픈 부분을 건드셨고, 난 주님의 옳음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비전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노트를 펴서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늘리기보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기보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 땅의 상처 입고 찢겨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신 비전은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에 있었다.

4. 교회가 되기 위한 고민

사람을 채우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답은 부르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 1:12)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부르심에는 응답과 결단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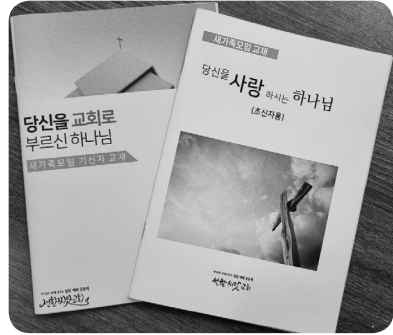
첫째,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초신자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모습일 것이다. 현실로 돌아가 보자, 제일 원하는 모습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가장 흔한 건 수평 이동이었다. 부득이한 이유 때문인 경우도 많았지만, 자기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었다. ‘교회 성도가 되어주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먼저였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자발적 응답과 결단은 필수적이었다.

둘째, 새가족 과정을 마친 뒤 등록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중요했다.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르듯,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4주간 진행되는 초신자용 교재와 기신자용 교재를 제작했다. 초신자용은 말 그대로 신앙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들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문제는 기신자용이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새가족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어떤 이들은 새가족 과정에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앙의 점검과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



돌이켜보면 이 두 가지 원칙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서 교회를 채우는 일에 손해를 본 것이 많다. 하지만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또한 새가족 과정은 지금도 핵심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을 만큼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새가족 과정이 마쳐져야 등록 교인이 됨을 알기에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참석했다. 이 시간은 참 특별했다. 단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으며, 신앙을 돌아보며 방향성을 점검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다. 마음을 나누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의 철학을 녹여낼 수 있었다.

교회는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다. 더 좋은 상품성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 잘 팔리는 교회가 목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오히려 점원에 가깝다. 점원은 언제나 상품을 가장 좋은 곳에 진열하고 가장 빛나는 곳에 둔다. 성도는 예외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 부르심에는 결단도 책임도 필요하다.

5. 교인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다

개척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목회의 현장 속에서는 무엇이든 잘하는 슈퍼히어로가 되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 하는 것이 있

고, 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렵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서로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이다. 목회의 협력자를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가 채워지면 교인도 성장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니었다. 교인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목장을 위해 주일설교 본문 요약본이 포함된 목장 공과를 매주 제작했다. 공과는 말씀을 통해 느끼고, 깨달았으며, 점검하고, 결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배움보다는 나눔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목자(리더)에게도 모임을 진행하는 큰 부담이 없다. 따로 준비할 것도, 미리 공부할 것도 없다.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주일이었다. 주일예배 후 식사를 마치고 모이게 되었다. 예배 횟수를 한 번 더 늘리는 것보다 실천적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주일 오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대신 목장으로 모였다. 보통 1시간 반에서 두 시간까지 제법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목장이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목장은 중요했다. 목회자의 설교에는 복음의 핵심과 목회의 철학, 교회의 방향이 담겨 있다. 목장은 이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모든 이를 매주 대면하지 못해도 목자는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준다.

특히 듣는 것과 나누는 것은 다르고, 보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 나누고 참여함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 서로를 통해 자라나게 된다. 이게 핵심이다. 목회자 한 사람의 영적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자라나며, 성도들이 겪는 삶의 공통된 고민을 나누며 동질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신앙의 고군분투가 도전이 된다. 부족한 이들을 다독이며 함께 걸어가고, 따뜻함으로 품어줌으로 하나가 되어간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게 목장이 우리 교회에게 주었던 유익이었다.

6. 다음 세대 중심의 사역

개척교회에서 사역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감당해야 하는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또한 시작했더라도 지속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꼬를 트는 일이 필요하다.

개척 첫째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당시 다섯 살 난 딸과 혼자 예배를 나오던 초등학생 한 명이 전부였다. 그 둘을 위해 열심을 다 했다. 그게 물꼬를 터서 후에 교회학교 예배를 세우게 된다. 없는 인원에서 예배를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다. 따라서 준비와 진행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예배 콘텐츠를 사용했다. 부담을 덜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흔들림 없이 이어가려면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하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도 아니고 교회의 부수적 역할도 아니다. 지금의 아이는 잠시 뒤 우리의 모습이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는 교회의 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 먼저이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포기시키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양보한다. 가장 좋은 곳을 양보하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아이들은 늘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하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 시끄러워도 참고, 어수선해도 견딘다. 가끔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앞으로 뛰어나온다. 그



래도 고맙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또 다른 집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로 행복한 교회를 소망한다. 우리는 이런 토대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가 교회를 떠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꿈꾼다. 예수의 소망을 품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나기를 말이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다.

7. 마치는 글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생각처럼 이상적이지 않다. 지뢰밭의 연속이다.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넘어진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인 경우가 많다. 실패한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준비된 목회는 중요하다. 좀 더 쉽고 빠르게 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개척 초기부터 늘 이런 고민을 했다. 개척 멤버가 있었더라면, 후원하고 돕는 손길이 더 있었더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현실은 그것과 멀었다. 그러나 잊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다.

어설픈 흥내 내기로 여러 요리를 내어본들 맛을 보는 순간 눈치채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흥내 내기가 아니라 진짜 맛을 내는 것이다. 진짜 맛은 오직 주님께 있다.



주님의 교회는 빠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다.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꾼다. 교회를 채우기보다 교회가 되어가자! 주님은 우리 편이시다.

복지중심교회



실로암교회 | 김영란 목사

1. 교회 기본정보

- ▶ 주소 : 화성시 봉담읍 유리 마을길 81 지하층 101, 실로암교회
- ▶ 지역적 상황 : 실로암교회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건설한 향남 신도시와 봉담 신도시의 중간에 놓인 '봉담읍 유리'에 자리 잡고 있다.

봉담읍 유리가 두 신도시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지역은 교육적 · 문화적 낙후 지역이다. 특히 교육기관이라고는 갈담초등학교와 꿈고래 어린이집이 전부이다. 지역 내 중 ·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가구가 터전을 옮긴다. 따라서 봉담읍 유리의 주된 인구층은 노년(약 100세대)이다.

실로암교회는 지역 내 기산아파트 상가의 반지하(약 육십여 평)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낙후된 교육적 · 문화적 기반을 타깃(target)으로 삼아 양질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쓰고 있다. 현재 실로암교회의 교인 수는 30여 명(어린이 속회 인원 10명 포함), 전 세대가 고루고루 세워져 가고 있는 비전교회이며 2021년 결산은 22,670,000원 선이다.

2. SILOAM, 우리는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왕하 18:17; 사 8:6; 느 3:15; 요 9:7). 특별히 신약 기사 중에서 실로암은 예수께서 이적을 보이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께서 소경된 자의 육안을 뜨게 하신 일, 그 이적은 실로암 연못에서 이루어졌다(요 9:6-11).

항상 소외되고 결핍된 자와 함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사역을 실로암교회의 신조로 삼았다. 실로암교회의 눈길이 가닿는 대상은 지역 내 소외계층이다.

나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실로암교회를 소개할 것임을 사전에 밝혀두고자 한다. 나는 실로암교회의 영어명인 ‘SILOAM’의 철자들을 활용하여 총 여섯 가지, 즉 전도의 시작과 과정, 비전과 전략, 핵심 사역 두 가지, 전도의 열매(증감률), 실로암교회의 포부를 이 지면 위에 담아내고자 한다.

소주제	영어 철자	테마	비고
전도의 시작과 과정	S	만학도가 시작(Start)한 교회	
비전과 전략	I	복음 전파를 위해 떠올린 발상(Idea)	
핵심사역①	L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Library) 운영	
핵심사역②	O	노인들(Old people)을 위한 사역	
전도의 열매	A	복음 전파? 우리도 할 수 있음(Ability)!	증감률
실로암교회의 오늘	M	전도(Mission Work)를 위한 포부	

1) 전도의 시작과 과정: 만학도가 시작(Start)한 교회

(1) 나는 만학도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나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다가 나는 어느 목회자와 다름 바가 없이 소명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구가하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으셨다. 이를테면, 건강, 재정, 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들. 도무지 인간

의 능력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주 앞에 고꾸라졌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동행해 주셨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나를 ‘중’으로 부르셨다. 2011년,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십 대 초반이라는 적잖은 나이에 협성대학교 신학과에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나는 만학도이면서 신학생이 되었다.

이후에 나는 협성대학교 신학부 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진학하였다. 특별히 2016년 3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진학한 지 1년이 되던 즈음에 내 사역의 움이 트게 되었다. 한 미자립교회의 후임자를 구한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렸다. 그 교회가 바로 실로암교회였다. 나와 남편은 며칠을 기도한 끝에 실로암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처음 실로암교회에 방문했을 때, 나는 가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최근 10년 동안 인적이 없었던 반지하 공간이었고, 햇빛은 온데간데없이 쥐들만 들끓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증금 20,000,000원, 시설비 5,000,000원, 월세는 550,000원이라는 교회 유지비용도 나에게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었다. 도무지 나는 실로암교회에서 사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이 교회로 이끄셨다.

2016년 6월 5일, 결국 나와 남편은 실로암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상가건물 외벽의 한 모퉁이에 교회 간판을 내달았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하나씩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가셨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한 교역자를 통해서 성전 집기를 제공해주셨다. 크리스탈 강대상, 헌금함, 성찬 집기, 피아노, 그 외에 여러 물품…. 때에 따라 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더하신 은혜는 마치 굳은 땅이 생동하도록 만드는 단비와도 같았다. 그렇다, 내겐 더할 나위 없이 단비였다.

(2) 유모차를 밀고 온 한 어르신

여느 미자립교회가 그러하듯 실로암교회는 ‘가정교회’로 출발하였다. 약 1년 동안, 실로암교회는 교역자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하였다. 그렇게 교역자 가정 이 주일 예배를 드린 지 꼭 1년이 되던 2017년 6월 11일, 한 분의 어르신이 유

모차를 밀며 교회에 오셨다. 김정희 어르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었다. 이분은 이미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는 분이였다. 그런데 어르신에 따르면,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자신의 발걸음으로 가시기에는 꽤 먼 곳에 있었으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자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올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김 집사님의 사정은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나는 이렇게 그분을 정중히 타일렀다. ‘집사님, 제 생각에는 그동안 출석하시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 집사님의 고충을 잘 털어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우선 그렇게 하심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김 집사님 역시도 내 말을 들으신 이후 제법 고민이 많으셨던 모양이다. 몇 주 동안 집사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집사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에 모습을 보이셨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이전에 출석하시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집사님의 신앙적 고민을 잘 헤아려주셨다는 후문이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첫 신자가 등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일 년을 고스란히 엮으셨더니 한 명을 채워주셨다. 지금도 김 집사님을 뵈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맴돌곤 한다. 참 내게 있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전도전략 스케치

실로암교회의 담임전도사가 된 이래로 내 나뉠대로는 열정을 갖고 사역하였다. 허나 목회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은 늘 내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가장 큰 부담은 전도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히 실로암교회가 위치한 유리지역은 교육적·문화적 인프라가 주변 신도시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유동인구 추이를 볼 때 이 지역은 학령인구와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많이 주변 신도시로 유출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것은 실로암교회의 성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느 미자립교회처럼, 실로암교회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전도에 관한 부분은 ‘결코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다.

자칫하다가는 내가 사역적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나는 중부연회 부평서지방회 산곡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조재진 목사님을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알게 되었다. 사실 조 목사님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분이였다. 그래도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현재의 목회적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금도 참 그분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조 목사님은 나의 고민을 단지 어느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닌 동역자의 고민으로 여겨주셨다는 점이다. 조 목사님은 “현재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도사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조 목사님의 제안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다짜고짜 인천시 부평으로 차를 내몰았다. 그렇게 육 개월 동안, 나는 목회경험이 풍부한 교역자의 조언을 토대로 여러 방법에 기인하여 진행된 노방전도에 동참하게 되었다.

전도의 열망이 있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나 역시도 전도를 향한 열망을 가슴에 새겼다. 그동안은 전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나였지만, 이제는 교회 인근에 있는 경로당(유리 마을회관, 진우아파트와 기산아파트 내에 있는 경





로당)을 수시로 찾았다. 어떤 날은 커피믹스를 가지고 가고, 또 어떤 날은 근처에 있던 빵튀기 공장에 가서 커다란 빵튀기 과자를 사 들고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한 듯 쳐다보셨던 어르신들이었지만,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전도를 거듭한 결과 그분들이 나를 알아봐 주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어르신은 내가 인사를 드리면 “아, 실로암교회 전도사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반응은 나에게 있어서 소소한 성과였다.

이어서 나는 220명 정도가 다니는 갈담초등학교로 몸을 돌렸다. 나는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생들의 하교 시간 즈음마다 신학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학교 앞이나 후문에서 미리 준비한 전도지를 돌렸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기들은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간식(어묵,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교회를 알렸고, 해마다 ‘어린이 초청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부모에게 교회를 선보였다.

이렇듯 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전도한 결과, 처음에는 목회자가 정, 즉 네 명으로 출발한 실로암교회는 현재 장년 이십여 명과 어린이 열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조 목사님이 섬기시는 산곡교회, 이 교회는 장차 내가 꿈꾸는 ‘실로암교회’의 모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목회라는 것이 그저 두렵고, 어렵기만 했던 내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한 자립교회. 이 교회와 함께 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실로암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확립할 수 있었고, 전도에 대한 전략을 구현할 수 있었다.

2) 비전과 전략: 복음 전파를 위해 떠올린 발상(Idea)

전도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실로암교회의 비전과 전도전략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 비전 : 주의 보내심에 합당한 '말씀 · 선교 공동체'

▶ 전략 :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도사역

① 말씀사역

- 어린이 속회(매주 화요일, 오후 3시와 5시)
- 임원 교육(2021년 상, 하반기, 낮 예배 후)
- 교사 교육(2022년 3월부터, 매주 낮 예배 후)

② 전도사역

- 노방전도
- 작은 도서관 운영(화성시와 연계)
-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돌봄 사역
- 노인대학

(1) 목회는 곧 말씀이다

목회는 곧 말씀이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목회는 죽은 목회라는 것이 개인의 소견이다. 말씀과 함께 생동하는 교회는 온전한 성도를 세운다. 나는 이것이 실로암교회가 지닌 강점이기를 바란다. 성도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의 합당한 삶을 영위하도록 부단히 애쓰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실로암교회의 비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이라면, 모두 4주 과정의 새신자 교육을 받도록 권면한다. 이를 통해서 새신자에게 소속감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등록교인 중 집사 이상의 직분(만 70세 미만)의 성도들에게는 임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봉사할 기회를 부여한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2022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대체 편성하여 말씀 양육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열한 말씀 사역은 어쩌면 지극히 일반적인 사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목회가 말씀으로, 또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믿는다.

(2) 전도의 열쇠

실로암교회가 지닌 ‘전도의 열쇠’는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 실로암교회의 성장을 이끌 열쇠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역이 아닐까 싶다.

누차로 언급했듯 봉담읍 유리는 (분명 거주민들은 싫어할 테지만) ‘소외’라는 말이 어울리는 동네이다. 다시 말하면 장차 실로암교회의 성도가 될 이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신도시 사이에 낀 동네, 교육적·문화적 낙후 지역. 나는 줄곧 내 앞에 놓인 목회적 여건이 탐탁지 않다고 여겼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한순간 예수는 늘 소외된 자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동안 나는 현상에만 주목한 나머지 한 영혼을 위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을 상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목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즉 학령인구와 독거노인 세대에 눈길을 돌렸다. 실로암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소외계층을 붙잡고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손에 쥐어진 전도의 열쇠이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실로암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전개함으로써 전도의 결실을 맛보게 되었다.

3) 핵심 사역

하나,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Library) 운영
둘, 노인들(Old People)을 위한 사역

(1) 실로암 작은 도서관

2017년,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의 봄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별히 화성시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그곳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동안 나는 이웃을 위한 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골똘히 궁리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소식이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나는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일념하에 발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허가를 맡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 출입문은 그대로 둔 채로 작은 도서관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고(교회 후문을 활용), 책이 천 권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도서관 내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만 하는 등 많은 조건이 따랐다.

나는 화성시청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기까지 계속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2017년 3월, 결국에는 화성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 이름은 ‘실로암 작은 도서관.’ 실로암 작은 도서관은 교회 건물 중 1/6 가량의 공간(후문 쪽으로 약 11평, 유아실과 목양실)을 할애하여 그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실로암 작은 도서관은 주변의 뜨거운 반응으로 인해 더욱더 확장되었다.



2020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은 오히려 더 확장하게 되었다. 원래는 교회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상가건물주와 상의한 끝에 건물의 공공요금과 건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많이 감해 주었다. 원래 교회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반지하보다는 사방이 트인 1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로암교회는 평상시에 이곳을 교회-이웃의 만남의 장(場)으로써 활용한다. 그리고 주 일에는 어린이 속회, 교사 모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내 학령인구를 위한 보금자리가 없었던 탓에 아이들의 부모들은 한숨을 쉬며 한탄했었다. 그러나 실로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됨으로써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이 참으로 흡족해한다. 더 나아가서 다각적인 말씀 사역을 시도할 수 있는 교육관이 생겼다는 점은 나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작은 도서관이 많은 이에게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곳이 단지 육체적 쉼만 더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의 샘이 흐르는 영의 안식처가 되기를 학수고대한다.

(2) 노인 100세대를 위한 사역

실로암교회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일상생활 영위가 취약한 노인 100세대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실로암교회는 지역 내 마을회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힘썼다. 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을 만났고, 2021년 가을, 코로나19의 위세가 한풀 꺾였던 즈음에 노인대학을 열어 전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9분의 어르신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 예배하게 되었다.

사실 어느 교회가 그러하듯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러한 사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실로암교회는 다시금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돌봄과 섬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예전에 실시하였던 교회 주변에 있는 노인정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그



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남·여선교회가 합심하여 정기적으로 반찬을 나누며 섬기려 한다. 교회 주변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심을 대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실시했던 노인대학도 올해 중에는 재개하려고 계획 중이다.

실로암교회는 봉담읍 유리에 거주하시는 소외된 계층, 어르신들의 다정한 이웃이 되고 싶다. 이분들의 회로애락을 함께하는, 다정한 이웃.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시금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시도록 전력을 다해 섬길 것이다.

4) 전도의 열매: 복음 전파? 우리도 할 수 있음(Ability)!

실로암교회는 또렷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 비전교회, 아니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교회이다. 실로암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도약하고 있다.

다음의 도표는 실로암교회의 성장 과정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집회인원, 결산금액, 교역자 생활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증감률은 최근 3년 기준). 물론 숫자의 증가가 전부는 아닐 테지만, 실로암교회는 나날이 신자가 늘어나고 있고 재정도 낙관적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실로암교회는 말씀의 일치를 이루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실현하고 있다.

첫째, 집회인원의 증감 추이이다. 2016년 목회를 시작한 당시에 실로암교회의 집회인원은 4명, 즉 교역자 가정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명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전도

구분	집회인원(단위: 명)	결산금액(단위: 원)	교역자 생활비(단위: 원)
2016 ...	4	0	0
2019	15	11,100,000	2,400,000
2020	15	13,346,000	3,240,000
2021	21	22,670,000	7,200,000
2022. 4.	26	합산 중	합산 중
증감률	73% 증가	88% 증가	200% 증가

사역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2020년에는 집회인원이 15명까지 늘었다.

특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강타로 인해 많은 교회가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참 고무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교인 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2021년에는 21명, 2022년 4월 현재에는 26명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최근 3년 동안 실로암교회의 집회인원은 73%가 증가하였다(15명→26명).

둘째, 교회 결산금액의 증감 추이이다. 교회 집회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결산금액 역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맨 처음 교회의 문을 열었을 당시에 결산금액은 단연 0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1,100,000원, 2020년에는 13,346,000원 그리고 2021년에는 22,670,000원이 되었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건대, 2022년에도 교회 결산금액이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실로암교회의 결산금액은 88%가 증가하였다(11,100,000원→22,670,000원).

셋째, 교역자 생활비의 증감 추이이다. 교역자 생활비 역시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7,200,000원 선으로 책정하게 되었다. 최근 3년 동안 실로암교회의 교역자 생활비는 200%가 증가하였다(2,400,000원→7,200,000원).

5) 실로암교회의 오늘: 전도(Mission Work)를 위한 포부

어느덧 내가 지금의 교회로 보냄을 받은 지도 7년이 되었다. 그동안 하나

님께서 나와 동역할 성도들을 때마다, 달마다, 날마다 보내주셨다. 지난 나의 목회를 환기해보니 2016년도만 제외하고는 매년 새신자가 등록하였으니 그저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실로암교회를 통로로 삼아 이루실 일도 기대된다. 내 마음 깊이 늘 새기고 있는 목회비전, 주의 보내심에 합당한 말씀 ·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가 말씀에 잇대어 주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전심으로 분투할 것이다.

3. 나오면서

몇 년 동안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로암 교회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이번 코로나 중에도 주일 낮 예배 인원이 계속 성장곡선을 그리는 교회가 되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식을 치른 경험이 없었는데 몇 달 전에 등록한 60대 중반의 어르신이 교회 생활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시란다. 그분이 요즘 주일 예배와 속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2023년에 그분에게 세례를 줄 생각에 설레임 속에 올해를 보내고 있다.

지금, 나의 카톡 상태 메시지는 ‘목회는 ~ 꽃 찾기’이다. 그 말처럼 실로암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부터 88세의 어르신, 한 영혼 한 영혼이 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꽃을 찾아 떠나는 여행,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문화중심교회



로템문화교회 | 홍기용 목사

1. 교회 기본정보

경기연회 안산서지방회에 속한 로템문화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2008년 11월 11일, 아파트 상가3층에 있는 약 15평의 상가에서 시작하였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교인의 90%가 모두 초신자부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개척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여 전도되어 오시는분들 대부분 어릴 때 한두번 교회를 다녔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않는 분들이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모두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다. 개척후 3년만에 부흥확장 이 전하여 현재는 사랑하는 성도들 약40명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아내와 결혼 후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다. 기도중 문화사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는 아내와 함께 문화사역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공부하며 준비해나갔다. 그런데 이미 기도중에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후배에

게 개척자금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하였다.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원의 약 15평 정도 되는 상가를 임대하였다. 따로 사택을 구할 형편이 되지않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한쪽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지만 목회의 열정만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런데 목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전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성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저 부흥과 숫자에 국한된 전도가 아닌 한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는 매일매일 전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했다.

3. 비전과 전략 (전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음과 같이 전도를 했다.

1) 반대로 전도였다

개척교회이며 성도가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기엔 물질도, 인력도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 방법으로 이사가시는분께 선물과 편지를 드리는 거였다. 보통은 이사오시면 전도를 하기위해 방문하지만 나는 반대로 이사가시는 분께 찾아가 선물과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편지의 내용은 “이곳에선 예수님을 만나지 못 하셨지만 이사가시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큰 감동을 하셨고 그분은 이곳을 떠나 다른곳으로 이사하셨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지인분들께 우리 교회를 칭찬하며 자기가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사갈때 이렇게 찾아와 마음을 전한 교회는 처음이라며 혹시라도 교회에 다니고싶으면 꼭 그 교회를 가보라고 했고 실제로 그 지인분께서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2) 종이컵전도였다

이 역시도 물질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방법이다. 전도 메시지와 교회이름이 적힌 종이컵 1,000개를 매주 부동산과 미용실 등 상가에 무료로

나눠드렸고 사장님들은 무료나눔에 기뻐했으며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물이나 음료를 마시며 자연스레 전도메세지와 교회를 보게하는 그런방법 이었다.

3) 양보다 질을 택한 방법이었다

보통 전도지를 몇천장 몇 만장씩 인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전도를 하지만 나는 반대로 그 비용을 전도대상자 한 사람에게 모두 사용하였다.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으로, 오직 한 영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전도의 방법이었다.

4) 새벽전도

우리교회는 52번 버스 종점에 바로 위치한 교회였는데 새벽예배후 커피, 빵 튀기, 미니붕어빵등을 포장하여 버스기사분과 출근하시는 사람들에게 전도메세지와 함께 나눠드렸는데 특히 버스기사분들이 참 좋아하시며 승객분들에게 우리교회를 소개하기도 하셨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교회의 사명이자 개개인의 소명 이었다. 이런 특별한 전도의 방법이 통했는지 아이들부터 부흥이 시작되더니 어른까지 부흥의 불길로 인해 성도 한 사람 없었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개척 3년만에 부흥확장 이전으로 상가2곳을 매매하게 되었고 현재 이곳에서 성전과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1) 무인카페운영 및 문화센터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평안한 공간을 제공하였을뿐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지역주민들과의 교제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도 했다.

(2) 차량지원

또한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차량지원 신청을 받아서 시험당일 차량지원을 해 줌으로써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시험장소로 이동시켜 주기도 했다.

(3) 마을 행사

이 뿐만 아니라 마을행사나 교회절기와 특별한 날에는 전교인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곳에서도 재능기부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다.

(4) 학교활동

이 외에도 다음세대 아이들위해서 학교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6) 코로나 19를 넘어서

이렇게 전도를 쉬지않고 있었던 그때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이상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못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도 기도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는 무엇일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은 더욱더 특별한 방법을 나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이후 현재까지 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1) 방송지원

코로나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예배 진행방법 이었다. 특히나 작은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수 없었고 장비를 구입한다해도 온라인방송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교회와 학원, 학교, 개인

사업자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 최상의 퀄리티로 방송을 할 수 있게 강의를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교회와 학교, 학원등 나의 재능기부를 통해 현재 어려움 없이 방송을 하고 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코로나시대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힘도 주며 실제로 사업장 홍보에 필요한 상호명 액자를 직접제작하여 선물로 드렸고 사업장 소개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렸다. 모든 과정은 오로지 재능기부로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레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3) 전도영상제작

코로나시대에 사람을 대면하는것 조차 조심스러웠기에 비대면으로 전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중 하나가 전도영상을 제작하는거였다. 5세부터 75세까지 전교인이 참여하여 수화를 배우고 전도 메세지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여 지인분들께 영상을 보내는 전도를 하였다.

4. 교회의 사역

목회에 있어 가장 큰 핵심사역은 (영혼구원)이다. 전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영혼구원에 있어 핵심사역은 나눔, 사랑, 실천이다. 이 세가지를 위해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전도사역이 있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까지는 은퇴후에나 가능할꺼라 생각했다. 그런데 꿈만 같은 기적이 나에게 찾아왔다. 지난 4월, 경기연회에서 총 3회차에 걸쳐 진행한 전도컨퍼런스에 안산서지방회 대표로 마지막 3회차에 출전하게 되었고



부상으로 승합차(기아 스타리아 12인승 신차)를 받게 되었다. 그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나님은 내가 은퇴후에나 가능할 꺼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신 것이다. 그 사역은 바로 전도차 사역이었다. 전도차 사역은 지난 소상공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소세지)에 이어 전도 프로젝트 (핫도그) 사역이다.

핫:핫한 방법으로/도:도와드리겠습니다./그: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동안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집중한 전도였다면 이 사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도가 필요한 교회에 집중한 사역이다.

승합차를 커피차로 개조하여 전도가 필요한 곳에 출동해서 따뜻한 음료와 커피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며 각 교회에 필요한 전도컨설팅을 통해 전도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외에도 아내가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 공연 및 말씀액자나 전도용품을 후원하는 사역이다. 성도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전도차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 사역의 모든 비용은 100%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지금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평소에는 아내와 내가 커피차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모아 작게나마 섬기고 있지만 곳곳에서 우리의 사역을 알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5. 초기전도/핵심멤버 세우기

개척초기에는 함께 할수 있는 인력이나 자본이 없어서 전도의 방법이 그리 많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도 개척초기에는 외롭게 혼자 전도했던거 같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거 같다. 다시 개척초기로 돌아간다면 나는 함께 할 동역자를 찾을 것이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는 나는 도움을 청하고 도와 달라는 말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랬던 이유는 이 사역이 내 사역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수 있다. 전도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우리는 당당히 도움을 청할수 있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그 길을 걸어왔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우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히 말하라” 부끄러운게 아니다.

6. 마치는 글

나는 올해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았다. 그 상은 나 혼자 받은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 해서 받은것도 아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덕분이다.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고 선한 부담감이 생겼다. 그로인해 비전이 생겼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전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려니 겁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위축되어 있는 개척교회가 다시금 일어설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변에 언제든지 친구가 되어 주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영원구원사역은 각 교회의 사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역이다. 절대로 외롭게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다. 함께 돕고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나도 도움을 받았듯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고 섬기겠다.



청년교회



주님사랑교회 | 김주평 전도사

1. 주님사랑교회

주님사랑교회는 서울연희 마포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6호선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2020년에 김주평 전도사가 부임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는 주님사랑교회는 4명의 개척교인과 함께 시작하여 현재 20명의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스무 명의 교인 중 두 명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열여덟 명이 20대 청년들이다. 현재 상가 지층 건물에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임대 사용 중이다.

2. 시작의 과정

신학교 학부생 시절, 출석 300명 규모의 청소년부 사역을 하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정성을 쏟고 사랑을 부으며 가르친 제자들에 대한 ‘목회 유효기간’이었다.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 나는 그들과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불편함이 종종 부서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찾은 이별이 못내 아쉬웠던 내게, 또 한 번의 찾은 이별을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군교회였다. 늦은 나이 입대하여 만난 두 살 위 군종장교의 전폭적 지지와



응원 아래 신우회를 조직하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양육했는데, 믿음으로 교제하다 전역하는 이들, 최전방이다 보니 초소교대를 위해 부대가 이동하는 이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전역까지.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연속성 없는 목양이 내 기도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기도의 가운데 ‘개척’에 대한 마음이 더욱 선명해져 갔고 이것은 준비와 행동으로 이어졌다. 전역 후 신학대학원에 복학하여 2년 내내 개척 자금을 모았다. 교회 사역을 하며 학비를 감당하고 학기 중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매 학기가 끝나면 복싱체육관 코치로 일하며 (필자는 프로권투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개척을 위한 재정을 준비하였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교회 개척에 뛰어들었다. 필자가 전역과 동시에 만든 예배공동체 ‘라스워십’의 멤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었고 그 중 음대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예배 반주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소속교회가 없었던 4명의 멤버들이 개척교인으로 뜻을 모아 주었다.

감리교는 서울에 개척을 허가해주지 않는 다는 말을 들어온 터라 어쩔 수 없이 독립교단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척교인들의 집과 지도상 자로 그어 중간이 되는 마포 합정 부근에 월세를 알아보기로 하고 부동산을 뒤지는

데 합정의 월세 수준은 나의 상상을 한참 상회했다. 결국 절충안을 찾은 곳이 현재의 망원동. 건물 지하 19평의 공간을 보증금 천만 원, 월세 8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 무렵, 모교회 원로목사님을 찾아뵙고 개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교인이 감리교에 요청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쉽다 하시면서 월세 얻은 지역 지방회 선교부총무를 찾아가 말이라도 꺼내보라고 조언해주셨다. 당시 마포지방 선교부총무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며 개척이 허가될 수 있는 지를 여쭙었다. 사실 큰 기대를 갖진 않았다. 승인도 없이 자리부터 잡아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지방 어른들이 껴섬히 여기면 모를까 반겨줄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교부 총무님은 뜻밖에 제안을 해주셨다. 사고구역으로 오래 방치되어, 건물도 성도도 없이 이름만 남은 ‘주님사랑교회’를 받아서 재개척을 하면 어떠냐는 것이었다. 교회를 설립했던 목사님이 병으로 인해 목회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있고 교회는 와해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의 공상은퇴도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이셨다.

혹자는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싶을 일이지만, 사실 전혀 내키지 않았다.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없으리 만무했다. 또한 감리교에 편입되기 위해 이름뿐인 교회의 연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상품부터 교회 방음인테리어까지 모든 시작을 하나하나 손수 해오던 개척교인들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기 힘든 일이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전임 목사님의 공상은퇴를 돕는 다는 것도 전혀 와 닿지 않았다.

기도해보라는 말에, 알겠다고는 했으나 전혀 기도가 되질 않았다. 개척교인들 역시 반대했다. 그런데 답을 드려야하는 시간이 임박할수록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정체모를 수축감의 원인을 발



전하고야 말았다. 무엇보다 저 좋은 제안이 달갑지 않은 것은 ‘내가 행정서류 상으로 마저도 완전한 설립자이길 원한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하필 교회이름이 ‘주님사랑교회’인 것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배목회자를 도우며 시작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는 그분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는 개척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모두 내 결정을 지지해주었다. 돌아보면, 이 결정은 내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또 한 번 극적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전임 목사님은 교회의 구역 복권 외에도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상은퇴를 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이 과정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교회개척 가운데 욕심을 견어낼 수 있게 하는 레슨으로 충분했다. 또 필자가 신학생이 아닌 목회자로 감리교를 다시금 만나 우리 교단을 사랑하게 만드는 (어쩌면 애증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주님사랑교회가 리부팅 되기 시작했다.

3. 예배

주님사랑교회의 예배는 오전 9시, 11시 두 번 있다. 9시 예배는 11시 예배와 동시에 필자의 원룸에서 진행되는 유아부를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한 ‘섬김이 예배’다. 6명의 교인이 한 주에 두 명씩 돌아가며 교사로 섬기는데 이 둘을 위한 예배다. 새벽예배는 365일 연중무휴 진행된다. 특별히 2022년은 새벽통독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매일 저녁 필자가 미리 읽어 녹음한 성경음원을 새벽



에 예배당과 유튜브로 동시 재생
함으로 온라인 새벽통독기도회를
진행했다. 말이 쉽지만 매일 성경을
녹음하고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업로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었다. 솔직한 마음으로 2023년
이 와서 다시 새벽 설교를 하는 것
을 고대하고 있다.



수요예배는 교리특강, 이단방
지 특강 등 강의 형식의 설교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실제로 형
장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2-3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수요예배 설교는 영
상으로 편집하여 유튜브를 통해 교인들이 시간이 될 때 들을 수 있도록 추가적
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주님사랑교회의 슬로건과 생존전략

‘우리는 국가대표 젊은 꼰대’

1) ‘젊은 꼰대’

주님사랑교회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입었지만 클래식한 신앙본질은 추구한
다. ‘파격’은 신선한 매력이 있지만 ‘본질’을 희석시킬 때가 종종 있다. 우리 교
회는 본질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가꿔온 문화를 소중이
여기고 그 위에 문화라는 옷을 입혀가는 교회다. 주님사랑교회는 대강절부터
- 성령강림절 까지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로 예배를 준비함으로 절기를 따
라가며 매 주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성령강림절
후부터 시작되는 평주일이 끝나고 첫 절기가 돌아오는 대강절까지는 성서일과
를 잠시 내려놓고 강해설교 혹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예배
를 구성한다. 성서일과에 따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공동체와 잘

어울리지 않고 너무 올드한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사랑교회의 예배는 늘 특별하다. 절기 찬송가들이 재즈라는 옷을 입기도 하고 절기 장식들이 모던이라는 옷을 입기도 한다.

우리 동네에는 ‘망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의 클래식함이 망원시장을 젊은이들 사이에 ‘감성시장’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주님사랑교회 역시 올드하다는 그낌보다 클래식하다는 표현이 더 가깝다. ‘본질을 추구하는 감성교회!’ 멋지지 않은가?

구본신참의 마음으로 옛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지, 옛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고지신’과 ‘구본신참’이라는 모토로, 주님사랑교회는 스스로 클래식한 ‘꼰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2) ‘국가 대표’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이자 ‘국가대표’라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일 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함을 강조한다. 주님사랑교회 성도들은 매주의 공예배와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 가운데서의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야함을 깨달아간다.

‘인터넷 선교’

개혁교회의 생존율은 2% 시대 속에서 주님사랑교회는 항상 ‘전시체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존전략’이 필요했다. 생존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사례비 없이 나의 삶은 물론 교회까지 건사해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며 노방전도 한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더 실감이 났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다. 시작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받을 갈았다.

‘우리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루도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은 ‘인터넷 선교’였다. 코로나 상황 속에 ‘비대면 서비스’가 예배문화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움에 빠졌다. 그로 인해 교회의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본인의 출석교회보다 더 좋은 예배, 잘 갖춰진 예배, 더 좋은 설교를 찾는 성도들이 생긴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준수한 설교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음향방송의 문제로 원활한 예배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아예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교인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큰 교회는 많은 교인들 속에 전문인력 봉사자들의 동역을 얻을 수 있고 유급사역자들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온라인 예배를 더욱 공교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이미 작은 교회들은 동력과 의욕을 잃는다. 이런 현실 속에 작은 교회들은 더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사랑교회에게 있어 이 상황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였다.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으시고, 또 교회 개척 소식을 보던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코로나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김주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신변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었다. 그곳엔 때마다의 필자의 관심사가 담겨 있다. 프로권투선수 시절에는 권투시합 영상들이 있고, 음악 활동을 할 때에는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는, 그런 일기장 같은 채널이었다. 그러다 목회에 확신을 갖게 된 후 온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쏠렸고 그 채널에는 설교와 찬양이 가득해졌다. 이것이 우리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접하게 되는 창구가 되어 주었다.

저마다의 이야기로 교회에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다. 이사하며 새로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유튜브에 올려져있던 새벽 설교를 듣고 호기심에 오셨다가 등록을 하신 분. 어쩌다 만난 찬양 영상의 멜로디가 좋아 구독해 듣다가 교회개



척 VLOG를 보고 자기 집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생애 첫 교회 출석을 한 분. 교회에 실망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셨다가 주님사랑교회 온라인 예배를 우연히 함께하게 되고 그 영상 속에 지나가듯 등장한 필자의 목회신조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오셨다는 성도님.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개척 첫 해 십여 명의 성도들이 새가족이 되었다. 이 과정에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선교는 과연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가난한 교회들은 돈쓰길 무서워한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영역에 투자하질 못한다. 교회재정 소비의 우선순위를 쉬이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였다. 우리교회는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음악 전공생들과 시작한 교회인 터라 좋은 악기들은 이미 갖추고 있었기에 카메라와 비디오캡처보드와 같은 방송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했다.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로 예배를 촬영하여 스트리밍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퀄리티의 차이가 상당하다. 음향믹서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다. 화면과 함께 그 깨끗한 음질의 사운드를 송출하는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전체를 바꿀 수 없

다면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장비들을 엮어줄 수 있는 장치를 구입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가성비 있지만 영상으로는 여타 대형교회와 화질과 음질 면에 뒤지지 않는 방송 시스템을 갖추었다.

‘인력이 없으면 내가 직접 배워서라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저것 벤치마킹하며 인터넷선교 인프라를 만들어 갔다. 설교, 찬양 등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교회개척 VLOG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그 결과는 참 좋았다. 온라인 예배 콘텐츠는 분명 가장 좋은 성장의 방법이자 이 시기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유효한 전도방법이었다.

지금까지 생존했고 이제 가능성을 봤으니 뛰어들 때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 생존전략은 생존경험이 되어 선교전략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5. 마치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힘든 일들도 분명 있지만 그 고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음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교회로 간다. 담임목회자가 매일 새벽 집을 나와서는, 집보다 그곳에 더 머물기 좋아하는 교회. 주님사랑교회로.

감리회 미자립 관련 정책



1. 미자립 기준과 현황

1) 미자립교회의 분류

감리회는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미자립교회를 구분한다. 이는 교리와 장정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2250] 제2조(정의)에 언급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기준이 결정된다고 덧붙인다.

일반적으로 미자립이나, 자립이나는 '목회자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구분한다. 하지만 현행 결산액이 4000만원 미만만을 놓고 구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면 우선 다양한 목회현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했느냐. 분명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타교단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현장을 분류해 기준의 차등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현재 감리회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감리회 전체를 관리한다. 다만 수시로 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이를 반영하고 기준을 조정하곤 했다. 2006년에는 2500만원 미만, 2012년에는 3500만원 미만 그리고 2021년에는 400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2) 타교단의 미자립 기준과 현황

감리회와 타교단의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장통합이다. 통합 측은 농어촌은 2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 그리고 대도시는 3000만원을 기준을 삼고 있으며, 현재 미자립의 비율은 35%다. 둘째 예장합동이다. 합동은 1년 예산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목회현장을 구분해 도시 교회 3500만원, 농산어촌교회 2500만원으로 삼아 미자립이 42%다. 그리고 감리회는 40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미자립이 47%다.

각 교단 내의 미자립교회의 비중은 35%, 42%, 47%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각 교단은 다른 기준을 근거로 미자립을 분류하기에 생긴 차이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각 교단의 기준을 조절해 감안해 보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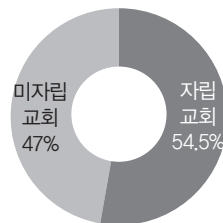
교단	기준	비율
예장통합	농어촌 2000, 중소 2500, 대 3000	35%
예장합동	3000만원 (도 3500, 농 2500)	42%
기감	4000만원 미만 (일괄)	47%

2. 감리교회 내의 현황과 미자립교회 비율

1) 국내교회 미자립비율 (2021년결산기준)

자립	3,369	52.6%
미자립	3,031	47.4%
전체	6,4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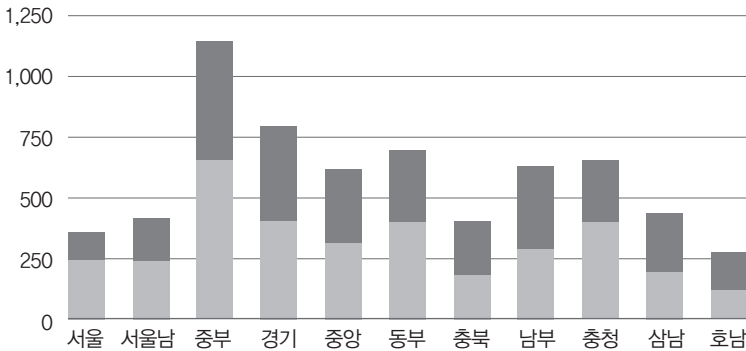
* 미주포함 6,659교회 미자립 : 3,114 (46.7%)



2) 연회별 교회 집계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미주 포함
교회	390	413	1,088	791	612	695	409	633	659	437	273	6,400
자립	246	235	655	401	314	400	183	284	397	194	115	3,424
미자립	144	178	488	390	298	295	226	349	262	243	158	3,031
비율	36.9%	43.1%	44.9%	49.3%	48.7%	42.4%	55.3	55.1%	39.8%	55.6%	57.9%	47.4%

3) 연회별 자립, 미자립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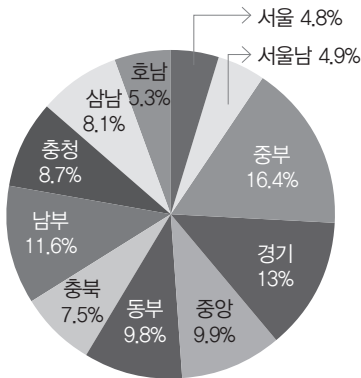


* 노란색: 자립, 파란색: 미자립

4) 2022년 교회 개척, 폐지 수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교회	390	413	1,088	791	612	695	409	633	659	437	273	6,400
개척	5	4	18	12	4	2		11	3	5	1	65
폐지	5	6	12	4	2	3	4	4	1	2	3	46
통합	1	2	1	1	0	1	1	0	1	1	0	9

5) 감리회 내 연회 비율



구분	전체	연회
서울	144	4.8 %
서울남	178	4.9 %
중부	488	16.4 %
경기	390	13 %
중앙	298	9.9 %
동부	295	9.8 %
충북	226	7.5 %
남부	349	11.6 %
충청	262	8.7 %
삼남	243	8.1 %
호남	158	5.3 %
전체	3,031	100 %

3. 미자립교회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정책 주제

1) 이중직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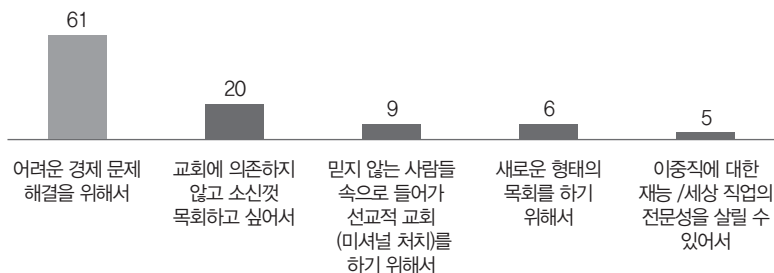
최근 이중직 목회에 대한 주제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조사한 바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 소속 교인 50명 이하의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직 목회에 대한 인식과 이중직 목회자의 목회상황에 대해 조사했다.¹

(1)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이전에는 이중직 목회의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교인수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이다. 교회의 소규모화가 진행되며 교회의 현금 수입이 줄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년 9월10일, 111호-〈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현재 이중직 하고 있다’ 3명 중 1명 꼴〉,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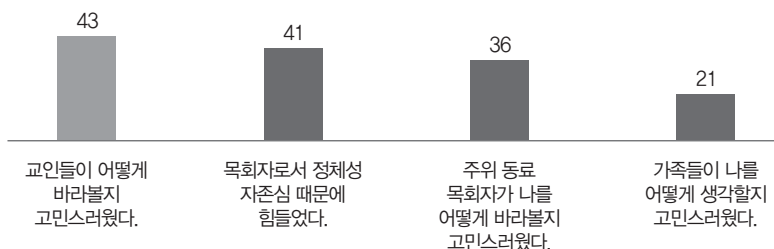
이중직 수행 이유(상위 5개)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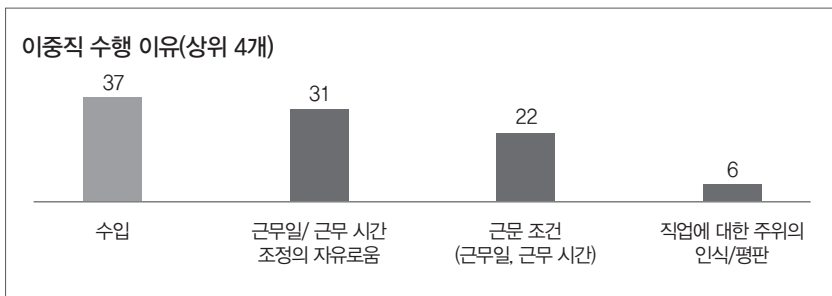
(2) 이중직 목회자들은 처음 이중직 수행을 결심할 때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교인과 동료 목회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고민에 빠진다. 이중직 목회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중직 목회를 바라보는 교단과 주위의 시선 때문이다.

이중직 수행 결정할 때 심정 ‘그렇다’ (매우+약간) 비율**



(3)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있다. 목회자가 직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는 것이다. 1위로 응답한 기준이 역시 ‘수입’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업을 고르는데 ‘수입’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한 ‘수입’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비율이 37% 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무일/근무시간 조정의 자유로움’이 그에 못지않은 31%, ‘근무조건(근무일, 근무시간)’이 22%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목사가 직

업을 갖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도 따지지만, 오히려 수입이 적어도 근무 조건(근무일,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중직 목사들이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을 주로 선택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직업적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목회를 위해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에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시각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는 목사라는 한계적 존재가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투철한 목사로 보아야 한다. 비록 교인이 몇 명 있지 않아 교회 존립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걱정을 떨쳐내고 목회가 소명임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이중직 목사다. (출처 : ‘넘버즈’ 목회데이터 연구소)

2) 교단차원의 이중직 허용 입장

| 주요교단 이중직 허용현황 |

교단	허용여부(시점)	조건	관련기구
예장합동	부분허용(2018)	미자립교회	없음
예장통합	불허		
기감	부분허용(2020)	미자립교회	연회

교단	허용여부(시점)	조건	관련기구
기성	불허		
기하성	불허		
기침	규정 없음		
기장	규정 없음		
고신	불허		
합신	불허		

(국민일보 2022 7. 8)

현재 감리회와 예장합동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교단들은 기본적으로 이중직에 대해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한국교회의 상당부분이 미자립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미자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중직을 허용하는 교단은 감리회와 예장합동 두 교단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당연하지만 두 교단은 미자립교회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리회는 이중직 또한 연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3) 공유교회

목회와 교회개척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것은 예배공간의 마련이다. 이로 인해 최근 ‘공유교회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즉 하나의 예배공간을 복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교회가 개척되고, 성립하려면 예배를 위한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해야 한다는 ‘소유’ 개념을 탈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가 갖게 되는 부담과 수고를 덜어 주어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감리회는 지난 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해 ‘공유교회’를 결의했다. ‘교리와 장정’ ‘편찬사’에 따르면 ‘공유교회’의 결의는 이번 입법 중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며, 또한 감리교회의 생존과 연결된 중요한 법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좁아지는 선교의 문으로 미자립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상황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교회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소개된다.

- ① 연회마다 공유교회에 대한 시행세칙을 세워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 ② 공유교회는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한번 더 연장해 6년까지 공유할 수 있다.
- ③ 공유교회를 통해 친인척 간의 공유교회를 해서는 안된다.

첫째, 연회가 각자 시행세칙을 세워야 한다.

교리와 장정, 중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6항 “☑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정해야 하고, 또한 연회 내에 있는 복수교회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건에 대해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의결해 연회감독이 연회 안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2항에 따르면 “☑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신설〉”에 따라 새로 마련된 예배처소의 지방회가 아닌 원지방회에 속하며,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하도록 함으로 이 예배처소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치임을 인지하고, 이후 교회가 속히 성장하기를 요구하는 개념들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공유교회’ 제도가 대형교회 내부에 세워진 공유교회를 세우고, 이후 지교회 혹은 편법세습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친인척 간의 공유교회를 제한하고 있다.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

SESSION 3

발 행 일 | 2022년 11월 29일

발 행 인 | 오일영 목사 (선교국 총무)

편 집 인 | 김병연 목사 (국내선교부장)

집 필 | 최재훈 박영진 신현희

발 행 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국내선교부)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 화 | 02-399-4333/4338

홈 페이지 | www.kmcmmission.or.kr

디자인·인쇄 | 디자인통(02-2278-7764)